

# “냉해 피해 복구 지원 최선”

유찬형 농협중앙회 부회장  
한파 피해지역 점검 위해  
김제·부안지역 방문



유찬형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지난 15일 전북 광화농협(조합장 신광식)과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을 방문해 폭설·한파로 피해를 입은 김제·부안 지역 농작물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김태곤 김제시지부장, 조인갑 부안군지부장이 함께 했다.

유찬형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지난 15일 전북 광화농협(조합장 신광식)과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을 방문해 폭설·한파로 피해를 입은 김제·부안 지역 농작물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김태곤 김제시지부장, 조인갑 부안군지부장이 함께 했다. 유 부회장은 현장점검에서 농업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시설감자 한파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번 폭설·한파로 김제 110ha, 부안 43ha 등 전북지역 7개 시군에 150ha의 시설감자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

유찬형 부회장은 “갑작스런 폭설과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번 냉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과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냉해 피해농가 더 확대돼선 안돼’... 농협 남원시지부, 현장점검

농협 남원시지부 권오정 지부장이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 15일에 금지면의 냉해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생필품을 지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들이 최근 유례없는 한파에 의한 냉해로 농작물 피해 농가들이 늘어나고 고령 및 취약 농가들은 식수난을 겪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남원시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취약농가에 긴급 생필품을 전달 하였고, 냉해 피해농가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오정 지부장은 “농협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권오정 지부장이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 15일에 금지면의 냉해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생필품을 지원했다.

### 설 명절 농촌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사진)이 설 명절을 대비해 고령농업인, 홀몸어르신 등 농촌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45만개를 지원한다고

전북농협, 마스크 45만개 지원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농협재단(이사장 이성희)의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설 명절 이전 전북 관내 13개 시·군지부와 9개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농협은 농협재단과 함께 지난해 8월 13만, 9월 38만, 11월 15만 등 총 66만장을 전북 관내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 지역도 더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아니라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이겨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콩·팥·들깨 등 발작물 신제품 종자 신청을’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통해 순차적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새로 개발한 발작물 신제품, 총 8작목 22품종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10일까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분양 신청을 받는다. 종자 가운데 장류·두부용 콩과 팥은 2kg, 검정콩은 1kg, 들깨와 참깨는 0.5kg, 팥콩은 10kg, 조, 수수, 기장은 각 1kg 단위로 분양한다. 콩은 장류·두부용 ‘평원’과 콩 고유의 비린내를 제거한 ‘미소’ 등 총 9품종이 보급된다. ‘평원’은 알이 중간 크기(22.8g/100알)이고,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하며 꼬투리가 잘 튀지 않는다. 10아르(a)당 생산량이 366kg으로 ‘내인품’보다 10% 많다. ‘미소’ 품종은 콩 비린내에 관여하는 효소를 제거해 비린내가 없고, 알이 크다.(28.2g/100알) 10아르(a)당 생산량이 314kg으로 기존 품종인 ‘진품콩2호’보다 18% 많다. ‘청자5호’는 속이 푸른 검정콩으로 알이 굵다.(37.0g/100알) 꼬투리가 높이 달려 기계수확이 가능하며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10아르(a)당 생산량이 343kg으로 기존 품종 ‘청자3호’보다 30% 많다. 그리고 ‘참미인’은 속이 푸른 녹색콩으로, 불마름병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고 알이 굵다(34.3g/100알). 유작물은 들깨의 경우 씨껍질(종피)이 갈색이며 생산량이 많고, 착유율이 높은 ‘다우’와 ‘들샘’을 보급한다. 참깨 품종으로는 시들음병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은 ‘강인’ (10아르당 119kg)이 있으며, 팥콩의 경우 알이 큰 ‘다인’ (127g/100알)과 생산량이 많은 ‘신팔광’ (10아르당 540kg), 기름 함량과 올레산 비율이 높은 ‘케이올’과 ‘해울’ 등이 보급되는 품종이다. 들깨, 참깨 등 3작목 7품종(들깨 2, 참깨 1, 팥콩 4), 잡곡은 팥, 수수 등 4작목 6품종(팥 2, 수수 1, 기장 2, 조 1)이 보급된다. 들깨 씨껍질(종피)이 갈색이며 생산량이 많고, 착유율이 높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15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원, 부점장, 영업점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 ‘은행업무 전반 걸쳐 디지털 전환 추진’

전북은행, 올해 1분기 경영전략회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지난 15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원, 부점장, 영업점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용택 은행장은 중기 경영전략 및 2021년도 경영계

획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며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1년 중점추진전략인 ▲핵심사업 고도화 ▲영업기반 강화 ▲경영합리화 제고 ▲디지털금융 혁신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100년 은행을 향한 지속성장 기반을 한층 견고히 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전북은행에 맞는 디지털금융 혁신을 이루기 위해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전북은행만의 특화된 New-Ez 모델을 발굴하여 성장해 나갈 방침이다. 임용택 은행장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각 영업점에서 수고한 임직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개공,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2차 채용 | 21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전환)는 전북도 위탁사업인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결원인 센터장 및 선임 코디네이터를 채용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민간과 행정은 연결하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고자 우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센터직원에 대한 채용을 실시했으나, 센터장 및 선임 코디네이터가 선발되지 않아 2차 채용을 실시한다. 공사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입찰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해 성별,

연령, 지역에 제한없이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채용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 회원유공장 수여식에서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 신협사회공헌재단, 적십자사 ‘최고명예대장’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이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 회원유공장 수여식에서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성주 신협행복나눔부장, 최현복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사무처장 및 신협사회공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은 구호사업 및 사회봉사를 위한 자원 조성, 헌혈 운동 등 적십자사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부여하는 상으로, 누적 기부금 5억 원 이상인 회원에게는 ‘최고명예대장’이 수여된다. 재단은 임직원으로 구성된 ‘두손모아봉사단’을 중심으로 펼쳐온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인정받으며 ‘최고명예대장’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신협두손모아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꾸준히 온정의 손길을 전해왔다. 제주두손모아봉사단은 2015년부터 4대 취약계층(다문화가정,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반찬지원 사

업을 함께하고 있으며, 경남울산두손모아봉사단은 2016년부터 3년 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합천원곡피해자복지회관에 기부금을 비롯한 시설개보수, 벽화 제작, 등을 지원했다. 재단은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2014년 회원유공장 ‘은장’을, 2017년에는 ‘금장’을 각각 수여 받은 바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대구지역에 마스크 5만장, 손세정제 25만장 등 5억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안전 구현에 앞장섰다.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신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와 협업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지역 사회와 유대를 강화하며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일회성, 선심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나 나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지속적으로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비대면·디지털 분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다. 지난해 경진원원 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진원은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역기업의 사업방식 및 업종 재편을 유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사업장은 기존 산업(농림어업·제조업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무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채용할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건비(기본급 180만원)를 지원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이후 적격사업 및 현장실사를 통해 참여 사업장을 선정한다. 사업에 참여할 청년 모집은 2월 8일부터 19일까지 디지털 업무를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0명 정도 모집예정이다.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전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www.1577-0365.or.kr](http://www.1577-0365.or.kr), 문의전화 280-4130, 41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